

하나님과 같이 가까이 계시는 분이 없습니다.

성경본문 <신명기 4장 1절 ~ 14절>

[1]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2]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3]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4]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5]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6]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7]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9]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10] 네가 호렘 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11]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12]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13]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14]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는 모세가 약속의 땅의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3편의 설교**입니다. 40여 년 동안의 광야생활을 통해서 **예언의 직접적인 대상자로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모들의 세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부모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자녀 세대에게**, 광야생활에서 겪어야 했던 일들에 대한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많은 부분이 율법과 규례와 관련된 것들이며, 레위기는 아예, 예배(제사)와 관련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5절, 14절). 광야에서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똑같이 적용되고,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동일한 삶을 살도록 도전**하십니다.

1.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약속을 누리고, 살게 되는 길입니다.

[1]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능력으로 땅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될 것이고, 땅을 얻게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순종해야 했던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침을 맞으면, 구름보고 갈 길을 정하는 것부터 했습니다. 율법과 규례들의 내용을 보면,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구름 따라 순종했던 것들이 이제는 일상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4]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2.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7]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서 응답해 주셨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나라가 있는가?**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도하게 하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원해서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에 불땀이 나오기도 하고, 날마다 반복되는 길로 인해서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것이 기도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라도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들의 의미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고 계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께 기도하게 되는 상황은 그 분을 경험하게 되는 첫 걸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제목>

1.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2. 기도에 응답하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경험하게 하소서.